

(특집)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협력의 남북 관계 개선 효과

이 우 영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지난 6월 북한의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남한에서 전지훈련을 와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단일팀의 경험(1991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 제6회 청소년축구대회)도 있는 마당에 전지훈련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지훈련은 교류의 차원에서는 또 다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체육 교류는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964년 제18회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참가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1984년 LA 올림픽 등에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3차례(1984.4.9 제1차, 1984.4.30 제2차, 1984.5.25 제3차)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IOC간 3자가 4차례 개최한 회담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행사 전반에 관한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1989년 3월(제1차)부터 1990년 2월(제9차)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체육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남북 교류는 199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1991) 등이 직접교류의 형태로 성사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8월, 북한 유도선수의 망명으로 인해 남북 체육 교류는 제3국 개최 체육 행사를 통해 남북 체육인간의 접촉이 지속되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1999년에 와서야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평양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가(1999.8), 현대 남녀농구단이 평양에서 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1999.9), 북한 남녀 농구선수단이 서울에서 통일농구대회(1999.12) 등이 있다. 특히 평양과 서울에서의 통일농구대회 개최는 1990년 이후 중단되었던 직접 교류 형태의 남북 체육 교류를 재개한 사례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수단의 서울 방문으로 1993년 이래 중단된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이 재개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체육 교류 활성화의 배경

남북간의 체육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 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 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京平戰)¹⁾과 같은 경기대회가 분단 전부터 해방 직후까지 면면히 유지되던 남북 체육 교류의 전통을 이어 왔다. 따라서 체육 교류에 대한 민족성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쉽고 교류의 이념을 창출해 내기에도 용이하다.

둘째, 다른 영역에 비해 남북 체육 교류 결실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남북한 체육 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은 1958년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비록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기존의 대화 노력의 축적과 경험은 체육 교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체육은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육 교류가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 대상이 된다.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점 자체가 교류의 동력이 되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남한이 사회 문화 교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 교류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 관심이 높은 행사일수록 경비 조달이 쉽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체육 교류는 20세기 스포츠의 세계적 규격화로 남한 체육과 북한 체육의 이질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 교류의 장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존재 자체도 체육 교류 활성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으며, 경기력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교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체육 교류는 그 수준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를 통하여 남북한 사람들이 직접 부딪는 경우도 있고, 응원단 파견을 통한 교류도 가능하다. 공동훈련, 전지훈련에서 단일팀 구성에 이르기까지 경기력 향상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육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 경평전은 1933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간에 축구 교류전으로 당시에는 열렬한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평전에는 축구 이외에 농구경기도 경평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여섯째, 체육 교류는 국제 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체육 교류는 양 당사자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 체육의 장에서 국제체육단체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IOC,를 포함하여 FIFA 등 각 종목 국제연맹 등의 국제적 중재 기구가 남북 체육 교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구는 남북한 간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체육 교류의 실제적 의미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체육 교류는 사회 문화 교류 일반과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체육 교류는 정치적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간 국교 정상화를 평풍 외교라고 말하고 있듯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도 체육 교류가 이루어지면 화해의 분위기가 고양된다. 1980년대 둘로 나뉘어 치렀던 올림픽도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정상화되면서 국제적인 냉전 구도의 와해도 동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일팀의 경우는 민족의식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올림픽의 공동 입장도 국내외적으로 남북한이 단일민족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쪽 응원단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체육 교류는 다른 교류와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인적 교류와 동반될 것이고, 방송 중계가 되는 과정에서 언론 교류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순히 경기를 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교류는 일종의 학술 교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체육 교류가 방송과 결합되는 경우,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관하고 시청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간접적인 교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류에 관여하는 숫자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시선의 통일, 혹은 시각의 교환이라는 질적인 교류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섯째, 체육 교류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하든 공동 입장을 하든간에 국제적인 차원의 체육 교류를 통해서 분단과 갈등으로 인식되어온 한반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체육 교류 활성화의 제도적 보완 조치

체육 교류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마련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가운데 체육 교류·협력의 부분이다. 체육 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으로는 특히 스포츠 과학 연구 성과의 교환이 중요하다. 저널이나 국제 경기 동향 분석서, 훈련 지도서 등 연구 성과의 교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성과물의 교환(도서 주고받기),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기술 협력의 예를 들면 훈련 방법, 경기의 운용 기술, 심리처방, 선수 영양관리법 등 선수의 경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원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체육 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에는 체육 부문 전문 인력(지도자와 선수, 교사, 교수, 연구자, 체육단체 관리자 등)교류와 생활 체육 부문의 인적 교류가 해당될 수 있다.

넷째로는 남과 북은 체육 관련 연구, 조사, 편찬 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 등 유관 성과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측의 각종 체육 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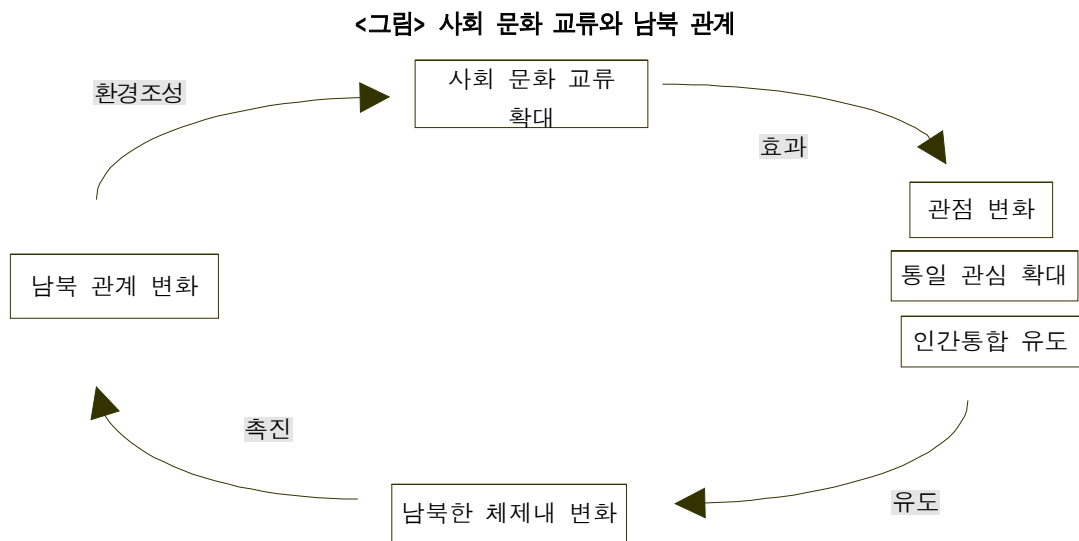
여섯째, 국제 무대의 교환 행위가 특히 많은 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의 공동 진출 및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유명무실한 경향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교류의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체육 교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문화 교류의 선순환적 기능 확대

단순히 교류의 횟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남북 체육 교류는 질적인 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과거

에는 올림픽에서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고, 특정 분야의 단일팀이 성사되었지만(탁구, 청소년 축구) 이제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목에서 전체적인 단일팀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 경기와 같이 일시적인 행사 중심에서 전지 훈련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교류로 발전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교류의 질적인 발전은 남북 사회 문화 교류가 갖는 선순환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사회 문화 교류가 남북 관계의 발전과 어우러지는 경우를 나타낸 것인데, 체육 교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 교류가 항상 선순환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잘못된 사회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보다는 남북한간 거리감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남북 관계에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체육 교류의 경우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체육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국가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